

문정공, 병마절제사 귀봉 권덕린과 회재 이언적

(경주 옥산서원)

허엽(許曄 1517-1580) 조선중기의 성리학자이자 문신, 성균관 대사성) 허초당(許草堂)이 쓴 경주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와 문신 정한강이 1651년에 남긴 기록을 보면 귀봉 권덕린(權德麟)은 자신의 관로까지 포기하고 옥산서원(玉山書院)을 창건한 기록이 객관적으로 잘 나타난다.



귀봉정사

허엽(許曄)은 옥산서원기 첫 머리부터 친구였던 “병조와 예조 정랑을 지낸 문정공 합천군수(陜川郡守) 권덕린은 회재(晦齋)의 학도다”로 시작해서 “그의 스승 회재 이언적(성리학자, 조선 명종 때의 문신)을 배향할 옥산서원을 지었으니 그 시말을 기록하고 서사의 이름을 지어 달라는 서신을 받았으나 엄(儼)은 병으로 시일을 미루다 초안도 못했는데 권군이 하세(下世) 하였다니 소년지학(少年志學)의 선비가 이 지경에 이르다니 아! 이 무슨 수명(壽命)인가”로 시작했다.

리지 못하고 외직에 밀린 것은 강계 유배 길에 오른 스승(회재 이언적)의 제자로 찍혔기 때문이다.

귀봉공은 스승이었던 회재 이언적이 명종 2년(1547, 정미) 9월에 일어난 양재역 벽서사건(부제학 정언각과 선전관 이로가 과천 양재역참에서 발간한 벽서 ‘위로는 여주(女主), 아래로는 간신 이기(李己)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익명서)를 발견, 임금에게 바쳤다. 이 건으로 인해 윤원형을 탄핵한 송인수 및 윤임 집안과 혼인을 했던 이약수는 사사되고, 이언적 노수신 정유침 백인걸 권응정 권응창 등 윤임과 친했던 사람 20여명이 유배되었으므로 유배 6년 만인 명종 8년(1553) 강계에서 숨지자 위함을 무릅쓰고 시신을 경주까지 운구, 포항 연일(延日)에 장례를 치루고 스승을 배향할 옥산서원 건립을 서둘렀다.

허초당이 쓴 경주 옥산서원기는 명문장이기도 하지만 친구를 잃은 슬픔과 스승을 향한 마음, 대 학자를 섬기는 유림의 정성이 모두 들어 있다. <이 서원기는 1574년부터 옥산서원 무분부에 걸렸다가 사라진 것을 439년만인 2013년 봄 권혁근(權赫根, 귀봉공 13세손) 옥산서원 유사가 다시 찾아내어서 구인당에 걸었다.>

선조 5년(1572) 두 해만에 경주 옥산서원이 준공됐다. 경주 인근 서악 향현사(鄉賢祠)에 봉안되었던 스승 위패를 모셔와 첫 향사를 관 전적(유생들 지도하는 정육품)이었지만 1년만인 명종 12년 예조 정랑으로 승차했다.

귀봉 권덕린 조선 명종 8년(1553) 계축년 문과에 25살의 나이로 급제, 관로의 길에 들어섰다. 첫 출사는 급제 3년 후인 1556년 성균관 전적(유생들 지도하는 정육품)이었지만 1년만인 명종 12년 예조 정랑으로 승차했다.

사화나 봉당의 정치는 참혹했다. 조선 중엽의 관직 품계로 보면 병조나 예조의 정랑 직을 거친 문신이 내직으로 승차할 경우는 참판이다. 외직일 경우도 부사(府使)

1558년에 병조정랑으로 자리를 옮겨 2년간을 봉직하셨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에서 20대 나이에 국장급 이상의 요직을 거쳤다. 귀봉공은 요즘으로 치면 실제 중실세가 앉았던 병조와 예조의 정랑을 거쳤으나 당상관(堂上官)에 오

나 부윤(府尹)이었지만 귀봉공은 한양에서 천리나 떨어진 궁벽한 고을 현감으로 내쳤다. 조선 조정은 벼슬길을 막지 못했을 뿐 귀양이나 같은 형을 내렸다.

더욱이 스승을 배향할 옥산서원 창건을 위해 자신의 관로마저 걸었던 귀봉공은 곤양군수 부임길에 병을 얻어 생을 놓으셨다.

그렇지만 귀봉공은 늘 백부리(分百里: 임금의 근심을 백리에 나눈다는 뜻, 즉 고을원이나 지방 수령으로 나가는 것을 말함)이셨다. 백성을 적자(赤子: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하다)보살피듯이 해서 세 워진 하동 거사비(去惡碑: 간 사람을 애뜻하게 사모함)나 합천의 유애비(遺愛碑)에서 애민 치적이 잘 표현돼 있다.<하동, 합천관에 보 존>

귀봉공은 중종 24년(1529) 경주 안감현에서 봉직랑(奉直郎, 東班 5종5품직)과 군자감(軍資監,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곳) 첨정(僉正)을 지내신 계중(繼中) 조선(祖先)과 공인(恭人: 조선시대 정오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내린 품계) 양성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경주향에선 일찍부터 영특함이 돋보인 소년으로 이름이 났다. 1651년 공의 증손(孫)은 그의 문집에서 “송곳보다 자루가 먼저 튀어나올 만큼 머리가 튀어나고 날달랐다(穎脫異凡兒)”고 적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셨지만 자애롭고 어지신 어머니(李氏)의 지극한 정성에 힘입어 학문의 길로

들어선 귀봉 선조는 8,9살 때에 글을 읽고 글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성취도가 빨랐다고 한다.

모부인은 “글 읽기가 소홀해 하루에 익혀야 할 공부를 다 하지 못하면 어린 노복(奴僕)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 아이에게 벌을 주어서 귀중 선조의 마음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였다”는 것.” 이런 방법이 문리를 깨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호조참판 오위도총부 부총판 이현경의 묘갈명 및 가장(家狀)에서 발췌>

회재 선생이 감안로(1481성종 12년~1537 중종 32년 조선 중기 시대의 문신, 정적에 대해서 무서운 공포정치로 탄핵)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경주 안감 자옥산 초막에서 성리학에 빠져 있을 시기였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아니한 모부인의 정성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학문의 날개를 달게 됐다.

당시 회재는 귀봉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재능을 꿰뚫어보시고 “이 아이는 세상 사람을 능히 놀라게 하고 유익함을 줄 인재다”라고 칭송하셨다고 한다.<귀봉집>

귀봉 선조의 선정을 가까이에서 기억한 합천 하동의 유림들이 눈물(安淚)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정경관서에 오를 분이라는 칭장년시절의 예찬을 뒤로하고 짧은 생애를 살았다. 귀봉공은 부임지마다 너그러운 마음과 깨끗한 관리정신(清白吏)을 지킨 것은 스승인 회재 이언적 선생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단종사화로 경상도 연일 땅으로 유배를 오신 고조부 사정(司正)공의 불의절의(不義節義) 정신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찾아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 명현록에 등재된 귀봉공은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에 태사공 시조와 함께 배향됐다.

권오신 (대중회부회장, 칼럼니스트)

“대중회에 건의한다”에 대한 답변

안동권씨 대중회의 발전을 염려하시는 여러 쪽 친들로부터 최근 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100만 안동권문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가감 없이 종보에 보도해 드렸 습니다. 앞으로도 대중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중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권혁한 부회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100만 족친들의 화합과 대중회의 발전을 위해 7월호 종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본 건의문 기사를 보신 족친들께서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회에서도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 좀 더 진전성 있고 치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릉중친회 권혁은 부회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보 2018년 2월 1일자 보도> 첫째, 태사공의 제례 축복에 시조비(始祖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500여년이나 실전되었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평창공의 묘전에 공덕비를 세우자. 셋째, 평창공 묘소에 성묘례를 정례화 하자는 건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권태현 전 조사연구위원**께서 첫째, 뿌리찾기 둘째, 대동보 편수 문제, 셋째 어머니 성씨를 따라 족보에 올리는 문제, 넷째, 홈페이지와 세대계승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셨습니다. 이 건의사항 역시 7월 1일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회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정말 안타깝고 공감 가는 건의사항입니다. 시조님 춘추향사에 참여해 오신 모든 선친과 족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마음을 안가지신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로님들께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전통대로 이어 가자는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대중회에서 자유계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족친들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공덕비 문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역사문화관 건립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여러 족친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집약하여 공문화화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평창공의 후손이 절손되어 풍산유씨에서 제례를 지내 온 지가 40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안동권씨 대중회에서 제례를 주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참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제례 때마다 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후손을 족보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대중회 차원의 족보편찬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중회에서는 족보편찬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머니 성을 따라 개성을 했더라도 호적상 권씨로 등록되어 있다면 족보에도 안동권씨로 등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5개 과 파총회장단 협의회에서 공문화화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권혁한 대중회 부회장께서 지난 5월 30일 제44차 정기총회 진행 상황을 보고 느낀 소회와 앞으로는 총회 진행시 고성 등이 오가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대중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셔서 종보 7월 1일자에 게재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 이전에는 홈페이지 담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회 사무분장 시에는 홈페이지 담당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여 족친들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다.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기술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석기시대에는 돌을 쪼개는 기술과 돌을 뾰족하게 가는 기술 등이 집단의 운명을 결정했다.

제4차 산업혁명, 즉 제2차 정보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

철기시대에도 철을 도구로 만드는 기술이 중요했다.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 덕분에 땅을 갈고 갈 수 있어서 농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를 끝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은 없었다. 인류는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을 탐구하는 데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농공상(士農工商) 등으로 기술을 도덕의 울타리 안에 가두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이 과학과 만났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정보혁명이 일어났다. 마침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인류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또한 AI 기술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며 인류의 적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기술은 도덕과 인문학 통제에서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만남은 기술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지만 기술의 위험성을 감당할 수는 없다. 과학에는 물리는 존재하지만 윤리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AI)이

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글 권성재

정 정보 도	구분	~을	~으로	구분	~을	~으로
본보 6월호와 7월호에 보도된 내용 중 오타 또는 용어와 소속 등이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본보 6월호 4면 안동권씨대중회 정관 제7장 보칙	제36조(特典 및 褒賞)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6조(特典 및 褒賞) 상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보 7월호 6면 6·13전국지자체 선거, 자랑스러운 권문의 당사자	서울시의원 권중순	대전시의원 권중순
		제37조(罰過) 본원	제37조(罰過) 본회		의정부시의원 권재형	경기도의회의원 권재형
		제38조(施行規則) 2항 시행규칙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한다.	제38조(施行規則) 2항 시행규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원주시의회의원 권순성	강원도의회의원 권순성
		대구시중구의회의원 권성대	대구시중구의회의원 권성대		대구시중구의회의원 권은정	대구시중구의회의원 권은정
		부산시중구의회의원 권대식	부산시중구의회의원 권대식		부천시의회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의원 권정선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ankwon2483@naver.com andongkwonmun24@daum.net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중회

연리실기술과 인물탐구(1) 양촌 권근

연리실기술의 편저자는 이공익이다. 그는 1736년(영조 12년)에 태어나서 1806년(순조 6년)에 사망했다. 호가 연리실(燃藥室)이다. 추사 김정희와 더불어 글씨 잘 쓰기로 유명한 원교(圓橋) 이광사의 아들이다. 원교의 글씨는 강진 백련사와 해남 대흥사에 지금도 걸려 있다. 원교는 소론이었다. 소론파의 강경분자인 그의 백부 이진유가 영조 6년에 역모죄로 몰리자 원교도 거기에 연좌되어 20여년 간 전라남도 완도 앞에 있는 신지도라는 섬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공익은 처음부터 벼슬길을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했다. 특히 역사에 비상한 관심과 취미를 갖고 널리 사서(史書)를 섭렵했다. 그래서 그는 태조 이래 각 왕대의 중요한 사건을 기사본말체(역대 중요 사건별로 항목을 세워 그 전말에 관한 사료를 수록) 방식으로 편찬하되, 자기의 견해나 비평을 가하지 않고 여러 사서에서 관계 기사를 발췌하여 책으로 엮었다. 특이한 점은 편저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는 대로 기입하고 보충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 연리실기술에 안동권문의 수많은 현조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태조시대 순서대로 탐구해 나가도록 하였다. 연리실기술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안동권문의 현조는 태조조의 문형인 양촌 권근이다. 양촌은 얼굴빛이 검어 사람들이 까마귀라고 부르곤 해서 소오자(小烏子)라고 자칭했다고 한다. 공민왕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양촌이 열여덟 살 소년으로 병과(丙科)에 합격하므로 왕이 노하며 말하길 “저렇듯 나이가 적은 자도 과거에 급제했느냐”라고 하자 고시를 담당했던 목은 이색이 “그렇지 장차 크게 쓰여 질 사람이니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때서야 왕의 마음이 풀려졌다고 한다. 편집국장 권행완